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27	01. 03	01. 10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탄절-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성도들 가정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2.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반주자, 음향 담당자께 감사 드립니다.
3. 신년예배-1월 1일(금) 오후 12시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4. 주일예배(27일)-오후 2시 예배당에서 현장,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5. 2020년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성탄절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 (새번역) .....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 118장 ..... 다같이
-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마 2 : 13 - 18 (신p2) ..... 이상호 목사  
(Matthäus 2:13-18)
- 설 교 Predigt ..... **쫄쫄한 성탄절!** .....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 122장 ..... 다같이
- 0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 (새 가족 환영) .....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묵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권사

# 기름 부음의 출발점

Ray Anderson은 '새 천년을 위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사역은 사실 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엑스 니힐로(ex nihilo)'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엑스 니힐로는 라틴어로 "아무것도 없는"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그 진리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창세 전에 있었던 캄캄한 진공상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도망자 신분인 모세가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담대하게 요구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비울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름부음의 출발점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이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낙담한 마음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은 완전히 무능하다는 각성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능하게 하는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능함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시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당신은 연약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 / Anthony L. Jinwright 목사  
(그레이트 세일럼 교회 담임)

**\*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그분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손이다.**

- Max Lucado(미국, 목사) -